

#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방송과 통신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의 대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통신을 활용해, 통신은 방송을 실어 이용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 정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기는, 방송통신 선진한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출범한 합의회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살리며, 특히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의 모든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리는 '방송통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책방향의 변화추이와 방송·통신 분야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모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담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대담자 : 최경수 편집위원장/ETRI 책임연구원〉



## 1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 융합은 IT 기술 전반의 대변혁일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으로 대두했습니다. 정부도 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촉진하고자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늦게나마 새로운 출범을 축하드리며,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의미와 정책목표,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착시여 나가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해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Global Player를 육성하고 나아가 Global standard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관심사인 IPTV도 올 하반기부터 볼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방송콘텐츠 산업이 꽃 필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2. 방통융합 현상의 효과와 문제점

방송과 통신 간 융합은 방송통신 시장을 통합하고 규모를 키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낳게 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 모델의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되고 수반되는 문제점과 역작용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방송** 통신융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신로 폭발적이라고 봅니다. 경제와 사회문화를 바꾸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방송과 통신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는 데서 기대가 큼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IT신화'의 역량을 지닌 우리로서는 분명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기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살려나가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융합에 따른 산업적,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을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키면서, 공익적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송과 통신으로 나눠진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른바 '법제융합'이죠. 이를 통해 시장경쟁과 공정경쟁 시스템을 정

**유무** 신 지적입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혁신기업이 발전할 새로운 기회를 열려면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기존 지배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파수나 망이 없는 사업자도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매 의무화 제도 등을 도입해 서비스나 품질 등본원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 전반에 동일한 규제원리를 적용하는 방송통신 통합법 마련을 추진하고, 독점 구조로 돼있는 현행 방송광고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도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번호를 대체할 '아이핀(i-PIN)' 제도를 활성화하고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네트워크 침해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는 다양한 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음란물과 불건전 정보 유통 문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풀어나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보는 스스로 지키고 인터넷 윤리를 지키려는 네티즌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 3. IPTV 정책방향

IPTV는 그동안 관련 부처끼리 방송인지 통신인지를 두고 지루한 논리전을 전개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옛 방송위원회는 IPTV가 방송 영역이므로 방송법으로 관리하면 모든 일이 풀린다고 했고,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결과인 만큼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정책방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니, 부처간 대립으로 생긴 비효율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이 시행이 됐고, 현재는 시행령과 고시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쯤에 IPTV 제공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상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PTV가 도입되면 초고속 인터넷망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물론, 주문형비디오(VOD)나 전자상거래 등 데이터 서비스, SMS와 메신저 등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이른바, 인터넷과 방송통신을 결합한 'TPS(Triple Play Service)'로 국민생활과 경제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4. 전파자원 관리

전파자원은 귀중한 공공자원입니다. 그런 만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파수회수나 재배치에 대한 논의도 그런 일환일 텐데, 이와 관련해 외국의 경향은 어떠한지, 우리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 하신대로, 전파 수요는 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기술적인 한계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호하는 주파수 대역도 일부 대역에 편중되고 있어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이끈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파수 회수 재배치 정책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할당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에 전파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도 디지털 TV 전환 이후 여유대역에 대해 이 제도를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서 미래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대비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 5. 지상파/위성DMB 육성방안

지상파와 위성DMB는 2005년 출범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찬사와 기대를 받았지만, 몇 년도 안 돼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뉴미디어와 이동방송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나친 규제로 수익모델 부재에 시달리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유지분 제한 완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모델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규제**가 지나쳐 수익모델을 만들기 힘들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DMB 경영이 어려운건 근본적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광고매출이 주 수익원인 지상파DMB는 단말기가 1,000만대 넘게 팔렸는데도 광고주들이 아직도 광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위성DMB도 유료라는 부담 때문에 가입자가 좀처럼 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상파재송신 승인이 늦어져 초기 가입자 유치에 실패했다고는 하나, 지난해 12월 MBC 재송신 이후에도 가입자가 5만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볼 때, 설득력은 적다고 봅니다. 사업자 스스로 다양한 채널상품을 개발하고 전용콘텐츠를 확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도 DMB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30%로 묶인 중소 지상파DMB사업자의 1인 지분을 49%로 늘리고, 위성DMB TV채널수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나갈 방침입니다.

## 6. 디지털서비스효과

지난 3월 28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디지털TV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막대한 투자만큼 획기적인 서비스 변화와 산업적 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디지털** TV는 지난 80년 흑백에서 컬러TV로 전환할 때의 감동을 증가하는 '영상혁명'으로 아날로그 방송에서 이루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누리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아날로그 방송보다 5~7배의 깨끗한 영상과 5.1채널 음향, 그리고 양방향서비스와 데이터방송, 전자상거래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산업적 효과도 클 것으로 봅니다. 디지털방송기나 콘텐츠, 수상기 등 장비 제조업과 방송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이 분야에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들도 오는 2012년까지 122조원의 생산효과와 40조원의 부가가치, 수출 318억 달러에다 84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디지털TV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DtoA 컨버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7. OECD 장관회의

세계 IT 지도자가 모이는 OECD 장관회의가 6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세계 전문가가 모여 인터넷의 미래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다는 점과 OECD 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다는 역사성과 맞물려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회의가 주는 의미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캐나** 다 오타와에서 1회 대회가 열린 때가 인터넷이 네트워크 수단으로 막 떠오르던 1998년이었고, 그 때 온라인 활동의 기초정책이라 할 개인정보와 보안, 과세, 소비자 정책 등이 마련돼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꼭 10년 만인 올해 2회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인터넷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행위와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1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는 무척 중요합니다. 대회 주제도 '인터넷 경제의 미래'입니다. 정부와 기업 기술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향후 10년간의 인터넷 경제를 이끌어 갈 원칙과 실천방법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37개 나라 42명의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CEO와 국제기구 대표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해 OECD 장관급 회의 가운데 가장 많은 장관과 연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의와 더불어 각종 포럼과 정보통신전시회인

'월드 IT쇼' 비즈니스 미팅 등이 함께 열려 국가 간 의견을 교환하고 인터넷경제의 미래를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8. 한미FTA 협정과 국내산업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FTA 방송시장 개방의 핵심은 국내PP에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향후 미국 거대 미디어기업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 국내 PP지분을 자유롭게 보유하게 되고 SO-PP간 새로운 수직적 결합 노력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시장 구조변화, PP의 양극화, 효율적 시장 재편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PP** 산업에 대한 그 간의 정책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토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PP는 다른 어떤 방송사업에 비해 규제 장벽이 낮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장구조라 하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FTA가 발효되면 PP 개방으로 시장 내 구조개편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한 사활의 잣대가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위원회는 PP의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221억원 규모의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비롯해, PP의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중소PP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 9. 우주인시대

우리나라가 배출한 우주인 이소연씨가 10일간의 우주 임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4월 19일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인 배출국가 반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점에서 국민적 자긍심을 드높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인시대에 즈음한 소회를 여쭙고자 합니다.

**19** 세기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누가 먼저 우주에 가서 우주산업을 선점하느냐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소연씨의 우주도전은 대한민국도 우주강국이 될 것이라는 꿈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IT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우리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우주인 탄생을 신호탄으로 우리 우주 항공산업이 활발한 투자와 더불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10. 당부의 말씀

통우연은 국내 위성통신·방송 분야 기술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집한 국내 유일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 분야 오피니언 리더그룹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서 하늘과 우주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기에 통우회 여러분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행운아이면서 창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구를 대체할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끝없는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통신위성과 우주개발 기술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각별합니다.

다가올 그 '기회의 땅'에 자랑스레 우뚝 설 날을 함께 꿈꾸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힘내십시오. 